

‘포스트 휴먼’의 세 가지 조건: 테크놀로지·젠더·정동

- 문윤성, 『완전사회』(1967)를 중심으로 -

최병구*

|| 차례 ||

- I. 『완전사회』의 안과 밖
- II. ‘포스트 휴먼’과 페미니즘 시각의 의미
- III. 과학(자)의 탈정치, 자본의 일상화
- IV. 두 개의 정동과 이분법의 해체
- V. ‘인간 혁명’을 위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문윤성의 『완전사회』(1967)를 중심으로 포스트 휴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완전사회』의 여인국이 겪는 위기는 자본 축적을 위해 주체에게 이분법적 사고를 학습시키고, 그들을 소비 주체로 만들어 버린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체제의 부도덕함을 가리기 위해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경제 만능주의를 유포시킨 박정희 정권의 통치방식에 대한 암시이다. 이를 간파하고 넘어서며 궁극적으로 포스트 휴먼이 되기 위한 매개로 『완전사회』에서 내세운 것이 바로 정동이다. 여인국은 신체와 신체가 만나는 성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정동을 통제했다. 하지만 정동은 신체의 만남이라는 관계의 순간에 개입하여 고정화된 사고 회로를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사회』가 추구한 ‘인간 혁명’, 즉 포스트 휴먼이란 특정 정체성을 할당하고 강요하는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폭력성을 해소할 때 가능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 과학소설, 과학기술, 『안전사회』, 포스트 휴먼, 젠더, 정동

I. 『안전사회』의 안과 밖

이 글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SF소설로 평가되는 『안전사회』에 나타난 포스트 휴먼 되기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 문윤성이 소설의 주인공 우선구의 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인간 혁명’이 포스트 휴먼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는 여인국이라는 설정에 내재하여 있는 젠더, 테크놀로지, 정동과 연계된다. 다시 말해 인간 혁명의 방법은 소설에 나타난 세 가지 개념의 역학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작동하던 시기에 창작된 소설을 대상으로 포스트 휴먼 되기의 방법을 살핀다는 목적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1960년대는 4·19를 기점으로 한 민중적 문학의 등장과 백낙청, 김현, 염무웅 등 신진 비평가들이 마련한 문학의 사회화에 대한 담론들이 익숙한 까닭이다. 하지만 저항적 민족주의 담론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저항했지만, “국가권력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근대 민족국가 기획과 꿈을 공유”¹⁾했다는 비판을 참고한다면,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가 목표로 삼았던 ‘역사적 자본주의’²⁾에 대한

1) 송은영, 「민족문학이라는 쌍생아」, 『비평 현장과 인문학 편성의 풍경들』, 소명출판, 2018, p.241.

2)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개념이다. 그는 1980년대에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속에서 일련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자유주의-사회주의의 발전 도식을 비판하며, 양자가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수렵에 기여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은 당대 지식인 전체에게 널리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명명은 과거의 시간을 횡단하며 평가한 것이기에, 당대의 지식인들이 역사적 자본주의 체제를 목표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과학적 문화는 전세계 자본 축적자들의 공동규약”³⁾이었다는 명제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테크놀로지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1960년대는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체제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추동한 시간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과학기술은 부연이 필요 없을 만큼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이 강조되었고, 과학기술은 자본과 결합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 무렵 이루어진 자본의 축적 과정이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결박시킨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요컨대 1960년대 박정희 체제 통치성의 이면은 테크놀로지와 젠더 문제를 경유할 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완전사회』는 주인공 우선구가 여성 사회를 비판하며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주장하는 대목을 남성적 시각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았다.⁴⁾ 여성공화국이라는 젠더적 시각을 드러냈으나, 박정희 체제의 남성 중

맹목적 신뢰가 인간을 소비 주체로 만들어 낸 메커니즘(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매뉴얼 윌러스틴/나종일·백영경 옮김,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자와비평사, 2014) 이러한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분석은 과학과 자유주의/사회주의, 자본주의와 젠더 관계를 사고하는 것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3) 위의 책, p.89.

4) 현재까지 제출된 『완전사회』에 대한 평가는 1960년대 박정희라는 가부장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성성의 위계화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쪽이 다수이다. 복도훈, 「단한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집, 한국근대문학회, 2011; 이숙, 「문윤성 『완전사회』(1967) 연구-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이데올로기 투영양상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52집, 국어문학회, 2012.

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거세 공포증에 시달린 주변부 남성의 무의식을 통해 남성성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조직된 박정희 체제의 균열을 보여준다는 연구가 제출되었다.⁵⁾ 박정희 체제 남성성의 공백으로 『완전사회』를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연구와 차이를 갖지만, “『완전사회』가 그려내는 거울상은 ‘여성주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남성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것이다.”⁶⁾라며, 『완전사회』를 페미니즘 소설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 글은 『완전사회』가 박정희 체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균열지점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지점인 경제 문제에 주목한다. 박정희 체제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현대 사회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성장을 위해 과학 기술을 동원하고 젠더의 위계 구조를 고착화했으며,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주체들을 만들기 위해 불온한 정념을 통제했다.⁷⁾ 물론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대중이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에 대한 욕망이 대중들의 마음에 스며들자, 그들은 스스로 경제 만능주의가 중심이 되는 일상을 살았다. 결론을 당겨 말하자면, 『완전사회』는 이러한 박정희 체제가 대중에게 작동하는 방식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비판적 시선을 보내지만, 대안적 상상력을 구조화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완전사회』가 미처 말하지 못한 대안적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완전사회』가 잠재하고 있는 세 가지 개념이 근대/포스트 근대를 횡단하며 어떻게 인식되고 변형되는지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

5) 허윤,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1960년대 초남성적 사회의 거울로서 『완전사회』」, 『민족문학사연구』 제67집, 민족문학사학회, 2018.

6) 위의 논문, p.498.

7)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근배 외, 『‘과학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서』, 역사비평사, 2018을 참고.

한 근대 사회에서 테크놀로지와 젠더의 문제가, 『완전사회』가 가정하고 있는 포스트 근대에서는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우리는 SF 소설을 읽으면서 “작품 안과 밖을 오가는 역설적인 이동을 한다.”⁸⁾ 작품의 안이 미래사회라면, 작품의 바깥은 현재이다. 『완전사회』의 내부는 2100년대 이후, 포스트 휴먼의 시대이며, 작품의 바깥은 1960년대 근대 사회이다. 작품 바깥-1960년대-의 테크놀로지가 자본과 국가라는 개념과 연결되었다면, 작품 안-포스트 휴먼의 시대-의 테크놀로지는 어떤 개념과 연결되고 있을까? 후술하겠지만 소설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정동과 연결시킨다. 『완전사회』의 테크놀로지-젠더-정동의 연결고리가 갖는 한계와 지향점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불)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포스트 휴먼’과 페미니즘 시각의 의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포스트 휴먼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되고 있는 ‘포스트 휴먼’은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근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존재의 출현을 성찰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휴먼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근대 인간의 신체적·지적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를 의미한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성형수술이 일반화되고,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이 가능해진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근대 인간은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과학을 무기로 인간의 권

8) 조애나 러스, 나현영 옮김,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출판사, 2020, p.69.

위를 강화했던 근대적 사고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포스트 휴먼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의 쇠퇴와 종말을 의미한다.”⁹⁾ 근대 사회가 어떻게 타자를 배척하며 진화했는가를 질문하며, ‘다른 인간’의 탄생을 갈망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의 핵심이다.¹⁰⁾ 근대 문명 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테크놀로지는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었다. 자유주의/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은 기계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수렴했다.¹¹⁾ 이 과정에서 소유 관념이 근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문화를 만들면서 주어진 것(자연)과 만들어진 것(문화)의 이분법이 생겨났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여 문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 자신이 만든 상품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환경오염이나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앞에 간과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추동한 인식론은 인간과 비인간(자연, 여성, 인종 등)의 이분법적 구도였다. 포스트 휴먼은 바로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가치와 확대된 공동체 의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며, 여기에 영토적 혹은 환경적 접촉이 포함된다.”¹²⁾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는 이러한 이분법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문화 전반이 위기를 겪으며 재구성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된 사회에

9) 김종갑, 「포스트휴먼, 그는 누구인가?」,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필로소픽, 2017, p.52.

10) 근대 문화 변동의 과정을 성찰하며 캐서린 헤일스는 “포스트 휴먼은 특정한 인간 개념의 종말, 개별 적인과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개념화할 부와 권력, 여유를 가진 극히 소수의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의 종말을 의미한다.” 캐서린 헤일스, 허진 옮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플래닛, 2013, pp.502-503.

11) 히로이 요시노리, 박제이 옮김, 『포스트 자본주의』, AK, 2017.

12) 로지 브라이도티, 이영란 옮김, 『포스트 휴먼』, 아카넷, 2017, p.243.

서, 인간 주체의 존재론적 기반은 ‘소유’에서 ‘연결’로 이동한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젠더 위계 구조에 대한 최근의 도전이다. 『82년생 김지영』 열풍은 네트워크 연결 사회로의 진입 국면에서, 여성을 사적 영역이라는 비가시적 공간으로 밀어 넣으며 이루어진 근대의 자본 축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김미정은 기존 미학으로 『82년생 김지영』을 읽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차라리 질문할 것은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싸고 작가의 욕망과 독자의 욕망이 어디쯤에서 어떻게 만나는지이다.”¹³⁾라고 주장한다. 이 발언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욕망의 변화를 읽어낼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82년생 김지영” 열풍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텍스트가 주체의 내면 욕망을 직접 자극하고 연결한 결과이다. 과거 리얼리즘 문학이 몇 가지 교의에 따라 현실을 재현하고 독자의 감정을 조직하고자 했다면, 여기서는 독자의 삶이 곧 김지영의 삶이 되는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다. 처음부터 결혼과 육아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한 구조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이 ‘문학 미디어’¹⁴⁾에 합류하면서, 『82년생 김지영』은 100만부나 팔릴 수 있었다. 문학 미디어를 거점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욕망과 목소리는 주체의 내면에 새겨진 젠더 위계의 회로를 질문했다. 여기에 세계적 연결망인 SNS가 더해지면서, 그 흐름은 한국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이 지점에서 페미니즘이 단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의 법-제도 전반이 성차별적으로 구축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근대 사회는 자연과 여성을 지배와 수탈의 대상으

13) 김미정, 『움직이는 별자리』, 갈무리, 2019, p.62.

14) 문학은 과거와 같이 독자적 텍스트로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에 연결된 미디어로서 작용한다. 과거에 문학은 단절된 개인의 내면에 조응했다면, 현재 문학 텍스트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미디어로서 기능한다.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문학 텍스트에 많은 사람이 연결될 수 있었다.

로 인식하며 발전했다.¹⁵⁾ 남성/여성의 위계는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세분화되었다. 자본과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주변부 남성은 생산 노동의 바깥으로 밀려나며 비주체=여성화된다. 여성화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주체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젠더 폭력은 여러 형태를 띠며, 그 모두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뒤엉켜 있다.”¹⁶⁾

따라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 젠더 문제를 질문한다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축적 구조의 위계성을 인식하고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다. 젠더 문제가 포스트 휴먼의 정치적 열정을 발산하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공동체 가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임은 분명하다. 젠더 문제를 거론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남성/여성의 대립을 넘어서 근대 사회 전반의 지배구조를 의문에 부치는 행동이다. 자본이 인간의 감정까지 상품화하는 시대에, 인간의 욕망을 자본으로부터 탈환하여 원래의 자리에 가져다 놓은 일의 시급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Ⅲ. 과학(자)의 탈정치, 자본의 일상화

『완전사회』는 한국인 우선구가 ‘완전인간’으로 선발되어 161년 동안 잠을 자고 깨어난 뒤 여인국이 되기까지 지구의 변화 과정을 알게 되고, 여인

15) 마리아 마즈,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16) 낸시 프레이저 외, 박지니 옮김, 『페미니즘 선언』, 움직씨 출판사, 2020, p.90. 이 책은 2019년 유럽에서 “99퍼센트의 페미니즘”을 목표로 발표된 11가지 테제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저자들은 페미니즘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이분법적 구조(비정규직/정규직, 여성/남성 등)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의 시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외부의 대립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완전사회』는 ‘여인국’이라는 설정을 하고 있지만, 주인공 우선구는 소설 내내 여인 천하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이며, 여인들의 외모를 기준으로 남/여의 구분을 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소설로서 한계가 분명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은 시각이지 하나의 분과 학문이 아니다.”¹⁷⁾라는 말을 신뢰한다면, 여성들의 세상을 비판하는 것을 곧바로 남성성의 우위를 선언하는 것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페미니즘의 시각이란 단순히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분법적 축적 구조에 대한 발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구조가 만들어진 자본과 테크놀로지, 노동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얼마나 날카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평가해야 한다. 소설에서 ‘여인국’이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완전사회』에서 여인국의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주체가 바로 과학(자)이었다. SF소설로서 『완전사회』가 과학에 주목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고, 또 소설에는 발전된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다양한 기체가 등장한다. 하지만 『완전사회』는 ‘과학(자)’의 성격과 존재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우선구는 지구의 과거 역사를 기록한 아내 장숙원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잠들어 있던 시간 동안 세계 3, 4차 대전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무기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4차 대전 이후 과학자들은 세계과학자연맹을 탄생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인류 공동의 이익, 평화, 진보를 위해서만 활동한다.”¹⁸⁾는 결의문을

17) 정희진, 「언어가 성별을 만든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p.109.

18) 문윤성, 『완전사회』, 아작, 2018, p.110.

낭독한다. 이 점은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완전사회』에서 세계과학자연맹은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한 간섭”¹⁹⁾에 시달리다 대중들이 동요하고 건달들이 선동하여 화성 개발에 나서기도 한다. 즉 작가는 1960년대 패권 국가들 사이의 과학기술력 경쟁이 갖는 함의를 날카롭게 인식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학연맹의 의지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쾌락을 추구하는 주체들을 양산해서 여인국이 출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는 뒤집어 말해 만약 과학자들이 세계연맹을 만들지 않고 각자 조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여인국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 질문은 테크놀로지와 욕망의 연관성을 묻는 것이다.

과학연맹 출범 이후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창출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과학센터가 전 세계 의식주의 생산 및 관리 체계를 짊어”게 되면서, “과학자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이며 실력자로 만민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²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변화는 아무도 과학자가 되지 않으려는 사회를 만들었다. 과학이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자, 경제 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까닭이다. 대신에 사람들은 ‘술과 사냥’, ‘철학과 예술’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중 사이에 이렇듯 쾌락, 흥분 등 자극성에 이끌리는 풍조가 팽배한 반면에는 인생의 더욱 높은 진리 탐구에 정열을 쏟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예술, 그리고 철학 부문도 융성하였다. 이상의 두 갈래 형태는 다 같이 각 개인의 감정의 발로였다. 누구도 남의 속박을 받지 않았다. 모든

19) 위의 책, p.122.

20) 위의 책, p.115.

사람은 자유였다. 여기서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표현해야 옳겠다.²¹⁾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사라지자 자기의 욕망을 두 가지 방향에 쏟았다. 하나가 술과 사냥이 상징하는 쾌락의 만족이라면, 다른 하나는 철학과 예술이 의미하는 인간 자율성의 발현이다. 작가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 욕망을 ‘자유’라는 이념으로 수렴시키지만, 사실 그 내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쾌락의 만족이 감정의 소모에 초점을 둔다면, 철학과 예술의 자율성이란 현실의 억압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삶과 욕망의 방향성을 바꾸었지만, 그렇게 재구조화된 욕망의 방향성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장숙원의 일기에서 묘사되는 지구의 모습은 전자로만 귀결되었다. “모든 젊은이는 자신의 뜻심과 원시적 무기만으로 야생 동물을 정복하는 데 도취”하고, “술은 상품으로 거래”되고 “술에 대한 정책을 내걸고 정부가 세워지기도 했다.”²²⁾ 사람들은 타인의 숙박을 받지 않고 전 세계를 이동하며 살아갔다. 세계를 유랑하는 자유로운 삶이 일상화되자 여성들은 그간 자기를 억압하던 임신과 육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과학의 발달로 남성 없이 임신이 가능해지자, 여성들의 권익 찾기는 더욱 활발해졌다. 2068년 진성 선언이 발표되고 2095년에는 여성들로 구성된 ‘칼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칼렘 공화국의 존재에 불만을 가진 남성 집단이 공화국을 약탈한 ‘스톤만 사건’ 이후 여성들의 힘은 더욱 커져갔다. 아래는 진성 선언의 도입부이다.

21) 위의 책, p.117.

22) 위의 책, p.116.

우리는 일체의 낡은 관념과 그 위에 설정된 모든 제도를 무시한다. 개인의 인생관으로부터 부부의 개념, 가족 제도, 법률, 사상, 사회 조직에 이르는 온갖 낡은 것은 근본적으로 파괴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중략) 성(性)의 모순과 대립이 있는 한 인류와 동물의 차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불행의 씨는 여기에서 싹트고, 여기서 자라난 악은 한없이 반복되고 발전한다. (중략) 우리는 과감하게 성의 모순과 대립을 타파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참되고 다음다운 사회와 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남성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제거한다.²³⁾

인용문에서 근대 가부장제의 남성성에 대한 비판을 읽어내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선구는 이렇게 형성된 여인국의 모습에서 불안과 고민을 느낀다. 여성들은 스스로를 진성인으로 자처하며 과거 사회의 대립과 반목이 사라졌다고 자부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4장으로 이월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성 선언’을 촉발시킨 과학의 기능과 역할이다.

정치와 결별한 과학(자)이라는 문제설정은 앞서 기술했듯 과학이 개별 국가(민족)의 이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60년대 박정희 체제 하 과학기술자 양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이었다.²⁴⁾ 다시 말해, 경제·과학·정치, 세 가지 분야

23) 위의 책, pp.174-175.

24) 1960년대 중후반은 KIST와 과학기술처가 설립되고 재외 한국인 과학자를 유치하는 제도와 조직이 정비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기로 평가된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과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만용, 「1960년대 ‘과학기술 붐’: 한국의 현대적 과학기술체제의 형성」, 『한국과학사학회지』 29, 2007을 참고. 물론 박정희 체제의 유신과 개발독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1970년대로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

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학이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 발전이란 도식 속에 과학기술을 가둬버린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진성 선언은 이러한 맥락에 더 힘을 실어준다.

이 지점에서 진성 선언까지 이끌어 낸 지구의 변화는 인간의 쾌락적 측면이 확대 강화된 결과라는 사실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과학의 역할 변동은 인간 내면의 쾌락적 측면을 확장시켜서 여인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여인국이라는 미래 사회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를 상징한다. 다시 말해 『완전사회』가 상상한 포스트 휴먼이란 근대 인간의 쾌락이 강화된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념적 대립이 사라지자 자본주의적 욕망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역사의 과정과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사회』가 상상한 포스트 휴먼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구의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자 유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설정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노동 없는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예상과 유사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성(Mobility)’이 포스트 휴먼의 삶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쾌락으로 귀결되었던 인간의 욕망은 생각 없는 삶을 살면서 소비하는 주체로 탈바꿈한 인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²⁵⁾ 근대 사회에서 통치체제에 대항하는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인간의 욕망까지 상품화되면서, 이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게 되어버린 현재 인간의 자화상이 곧 『완전사회』에서 여인국이 세워질 무렵 인간의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정리하자면, 『완전사회』에서 과학은 민족-국가와의 결합에서 벗어나서

시각을 『완전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25) 기술이 생각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내는 맥락에 대해서는 니콜라스 카, 최지향 옮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인류 공통의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합류했다. 전자가 국가 대립의 한 축으로 테크놀로지를 인식한다면, 후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을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구는 큰 변화를 맞았다. 이 변화는 소설 안에서는 여인국의 탄생이었으며, 소설 바깥의 맥락에서는 포스트 휴먼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사회』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를 여인국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자본과 결합하는 테크놀로지의 특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작가는 근대화 시기 경제 성장의 논리와 결합했던 과학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감각적 측면을 자극하며 새로운 경제 체제의 구축에 활용될 것임을 상상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스트 자본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구조 변동에서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욕망이 맺는 역학관계에 천착했다. 과학자들은 탈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며 지구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정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탈이념이 탈정치로 귀착되어 소비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자리 잡는 과정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인국이란 이념적 대립이 사라진 시대, 자본주의가 전면화된 사회의 자본과 소비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 낸 체제이다. ‘이동성’ 혹은 ‘유동성’ 개념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완전사회』가 예상한 미래 사회는 상당 부분 정확했다. 이제 물질욕망, 다시 말해 자본에 대한 쾌락적 욕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차례이다.

IV. 두 개의 정동과 이분법의 해체

포스트 휴먼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와 국가,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벗어난 존재이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상징하고, 노동 생산성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에 공헌한 시대의 자본 축적의 문법과 거리를 둔 존재가 바로 포스트 휴먼이다.

우선구가 목격한 여인국의 풍경은 포스트 휴먼의 삶을 일부 실현시켰다. 화성에 도착한 우선구는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검거된 뒤에, 제5특수 정보국에 소속되어 도시의 공장과 초급학교를 견학한다. 공장은 기계에 의해 완전히 자동화되었고, 음악과 향기가 기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의 기계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정이 담기고 품위가 갖춰진 어엿한 영적 존재 같았다.”²⁶⁾ 인간은 기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기계-인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초급학교는 교과서가 없고, 놀이를 통해 수와 물리, 천문 등을 가르치고 있었다.

무엇보다 여인국은 국가와 국가의 대립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인국에서는 “조국이니 모국이니 하는 국수 관념은 아예 깨끗이 청소”²⁷⁾되고, 언어는 ‘헤민어’로 통일되었다. 여인국의 통치체제는 대중들의 힘이 권력에 반영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들은 고위 관리의 24시간을 빠짐없이 공개했으며, 세계 정부의 고위 임원의 나이는 평균 26세다. 세계 정부-지역권-사회권의 구조로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의 기간이 되는 사회권에 독자적인 입법 기관이 있고 또 세계 정부의 입법 의원 선거권이 사회인에게 있어 지방 정부, 세계 정부의 3단계 통치의 묘”²⁸⁾를 발휘하고 있다.

26) 문윤성, 앞의 책, pp.225-226.

27) 위의 책, p.293.

28) 위의 책, p.286.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도 여인국은 불안했다. 바깥으로는 화성에 사는 남성들과 교전 중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희망과 우정의 모임’이라는 성해방 조직이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지구 안팎의 대립구도는 개인의 욕망을 둘러싸고 형성된 것이다. 남성들은 지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뒤, 인간의 쾌락이 강화되고 여성과의 대립이 격화되어 화성으로 쫓겨났으며, 성욕을 억압하는 여인국의 법이 ‘희망과 우정의 모임’이라는 이적 단체가 탄생한 이유이다. 여인국의 최고 지도자가 살고 있는 헤어지루의 중앙병원으로 오게 된 우선구는, 여인국에 대한 인상을 묻는 시니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야 겉모양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런 변화는, 비록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있었지만 나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소.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면, 인류 사회의 기본 형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 대 인간, 또는 어느 집단 대 집단의 대립,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 심지어 인간 상잔의 처참한 모습마저 예나 지금이나…”²⁹⁾

선구는 힘과 힘의 투쟁이 벌어지는 여인국의 모습에 주목한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동·교육 현장은 발달했으나, 과거 사회의 민족과 민족 대결 같은 힘의 대립이 변주되어 존재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여가에서의 힘의 대립이란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여인국의 체제를 둘러싼 현상이다. 여인국은 성인이 되어 사회권의 구성원이 되면 위생국으로부터 홀랜 면허증을 받고 ‘홀랜의 집’을 이용하게 된다. 홀랜의 집에서만 성행위를 해야 하며 그 밖의 공간에서 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인민의 건강으로 보호하고, 인민의 기호를 존중하고, 궁지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홀랜의 집은 사람들의 욕망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기구이

29) 위의 책, p.278.

다. 국가가 성행위를 억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성본능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가졌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강렬한 작용을 가진 본능이며, 모든 생활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성문화가 바로 인류 문화라고도 하겠습니까. ... (중략)... 공기에는 입자가 없고 성격이 없으나 성에는 불가침의 소유권과 저마다의 개성이 있습니다. 뿐더러 개인에 따라, 지방에 따라, 종족에 따라, 그리고 시간, 장소, 환경에 따라 성행위의 형태는 실로 천태만상이니 성행정을 담당할 책임자는 처음에는 성의 의의, 성행위의 규범조차 손을 못 댈 정도였습니다.³⁰⁾

여인국이 성행위를 억압한 것은 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단일 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성본능은 언제나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대상이다. 게다가 몸과 몸이 부딪히는 섹스는 양성 시대의 산물로, 여인국에서는 허용하기 어려웠다. 여인국의 시선에서 섹스는 타인과 결합하여 사회 질서에 혼란만 가져다주는 행위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홀렌의 집에서 기계의 힘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 된다. 홀렌의 집은 인간 신체와 욕망을 쾌락의 추구라는 수동적 목표로 고정시키는 기계이다. 쾌락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사고하면, 타인과 몸을 맞추는 것보다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오토메이션은 오토메이션. 기계에는 애정이 없었다. 감정을 속삭이고 의지하고 받아 주는 멋이 없는 것이다.”³¹⁾라는 우선구의 말처럼, 여인국 사람들은 홀렌의 집에 만족하지 못했다. 선구가 정부 반대 모임에 참석했다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희망과 우정의 모임’에서 선구를 구출

30) 위의 책, p.382.

31) 위의 책, p.388.

해 자신들의 아지트로 데려간다. 그 자리에서 여성들은 “애써 여성다운 자세를 취하고”, “화장을 하고 말이나 행동에 교태”³²⁾를 부렸다. 선구는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적 분위기를 경험하고 스스로 탈출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다. 요컨대 ‘희망과 우정의 모임’은 인간의 쾌락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과 몸의 결합을 억압하는 여인국의 제도를 비판한 것이다.

여인국이 탄생하기 전 인간의 자율성이 쾌락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으로 구분되었음을 상기하자. 전자의 측면이 소비되는 수동적 감정을 만들어냈다면, 후자의 측면은 지속되고 공유될 수 있는 적극적 욕망을 창출한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국가는 쾌락의 추구는 승인하지만, 철학적 측면으로 욕망이 발현되는 것은 금지한다. 언제든 정치적 열정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인국이 몸과 몸이 만나는 섹스를 금지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인국의 지도부는 대중들의 욕망이 정치적 열정으로 정동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남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여인국의 심리에는 이러한 맥락이 내재되어있었다.

우선구가 느낀 여인국의 가장 큰 불안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국민들이 쾌락에 붙들려 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헤어지루의 아무도 없는 극장에서 연극을 감상한 우선구는 연출자에게 광고를 해서 관객을 모으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연출자는 “오늘의 사회인들은 예술에는 장님”이라고 선언하며 “정부는 사회인들을 모조리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인구의 90퍼센트는 변태 성욕자”³³⁾라고 일갈한다. ‘희망과 우정의 모임’ 사람들을 쾌락만을 추구하는 바보로 인식한 것이다. 이후 우선구는 연출자 및 교수들이 중심

32) 위의 책, p.427.

33) 위의 책, p.311.

이 된 비밀 지하조직을 알게 된다. 이 집단은 정부와 비밀리에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분명 정부는 인민 대중을 유지한 저능아로 만들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지몽매한 노예로 만들어 놓으려는 겁니다. 금년에 새로 제정한 대학 교재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부의 문교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어요. 금년도 대학 교재의 수준은 작년보다도 더 낮습니다. 작년도는 재작년보다 알고 그전 해는 그해의 전년도 것보다 더 알고 이렇게 거듭해 온 결과 금년도 대학 교재는 거의 5년 전 단련학교의 그 정도와 같은 것이 되고 말았어요.”³⁴⁾

인용문은 정부가 대학 교육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바보가 된 사람들은 변태 성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이런 인식을 갖춘 지하조직의 존재는 희망과 우정의 모임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우선 이들은 욕망이라는 문제를 공유한다.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희망과 우정의 모임은 자기의 쾌락을 소모하는 행위에 목적을 두었다면, 반정부 지하조직의 욕망은 직접적으로 정부를 겨냥한다. 전자의 욕망은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정부 지하조직의 문제의식과도 일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시대의 남성성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우선구를 교주로 추대하는 행위가 보여주듯, 근본적으로 자기만족의 행위로서 감정을 소모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우선구는 희망과 우정의 모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지하조직의 모임에 참여하고는 “이 사람들과 나는 서로 상통하는 심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구를 남성 이데

34) 위의 책, pp.367-368.

올로기의 대리자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오히려 그는 박정희 정권의 풍속 통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소유자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구가 느끼는 여인국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근원에는 대중문화와 경제의 논리에 휩쓸려 바보가 되어가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³⁵⁾

따라서 『완전사회』라는 텍스트는 두 겹의 의미망을 갖는다. 하나의 의미망은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내재한 과학-경제의 연합에 대한 비판이다.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완전사회』는 1960년대 동서 냉전의 우주 정복 경쟁과 거기에 내재된 남성 우월주의를 의식하며 이를 전도시킨다. 두 번째 의미망은 과학-경제의 연합이 쾌락의 정념과 결합하는 맥락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여인국 체제는 첫 번째 의미망 속에서 탄생했지만, 쾌락의 정념과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구는 반정부세력에 가담하여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미래로 온 자신의 임무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선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사회 불안의 제거 없이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혹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사회 불안의 씨는 성문체에 걸려 있다. 계브와 두버무의 처리가 그것이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중략) ‘오늘에 있어 성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아니 오직 이것만이 절대 과제인 것은 인간본질의 규명,

35) 『완전사회』가 발표된 주간지 『주간한국』은 박정희 체제의 승인과 지원 아래 대중들에게 오락과 교양을 제공했다. 『주간한국』은 창간호와 2호가 완전 매진되는 등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위상: 『주간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한문집』 3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를 참조. 『완전사회』는 박정희 체제 하 대중 욕망에 부응하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언론과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인간본질의 발견이다. 이것 없이 사회의 성공적 성립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인류 사회의 타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다.’³⁶⁾

우선구는 성 문제는 여인국의 길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고, 본질적 문제인 “인류 사회의 타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 문제를 남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근대 인간의 본질로 파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적 영역/공적 영역, 남성/여성, 백인/흑인 등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타자와의 비교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근대인의 정체성 형성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선구는 교도소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 여성의 승리로 종식된 이후 육식주의자/채식주의자의 대립을 다룬 소설 <미래 전쟁>을 집필한다. 여기서 우선구는 “역사적 여건에 얽매어 지내온 인간을 지양하고 슬기로운 인간, 능동의 인간으로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겠다. 인간 혁명, 이 길만이 우리의 돌파구다.”³⁷⁾라며 이분법적 대립의 해소를 주장한다.

카롤린 엠케는 타인에 대한 혐오가 일상화된 현상을 분석하며 “ ‘타자’는 위협한 힘을 지녔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근거 없이 추정되고, 따라서 그들을 확대하거나 제어하는 행위는 단순히 용서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조치로 추켜올려진다.”³⁸⁾고 정의한다. 타자를 제거해야 하는 존재로 사고하게 된 것은 포스트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심어 놓은 세계관이다. 기계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비정규직 노동의 일상화 등의 현상은 우리에게 자조와 분노를 가져온다.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사람들은 넘어서야 하는 대상으로 타자를 정의한다. 근대를 지나

36) 문윤성, 앞의 책, p.416.

37) 위의 책, p.462.

38) 카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다산초당, 2017, p.18.

포스트 근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분법적 현실 인식은 더욱 공고히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 우선구가 자각한 “인간 혁명”이란 바로 이러한 삶의 패턴을 극복하는 존재로서 포스트 휴먼을 사유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경제의 결합이 만들어 낼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욕망의 정치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선구는 이러한 생각을 여인국에 전달하기 위해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다룬 가상의 소설 <미래 전쟁>을 집필한다.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의 대립이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상징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가상 소설에서 주목할 것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열의를 고수했던 채식주의자 켄타리 가족의 모습이다. <미래 전쟁>에서 채식주의자 켄타리 엄마는 육식주의자 루시 모녀를 돌보며, 딸들과 전쟁의 불합리함을 토론한다. 그녀는 사학과 출신으로 역사에 밝았다. 그녀가 인식한 역사에서 인간은 타인과 경쟁하고 싸우면서 인류를 발전시켰다. 근대에서 남성이 제거되었으나, “남성의 횡포는 합리적으로 제거되어야지 남성 자체의 말살은 여성에게도 이롭지 못했다.” (464) 켄타리 엄마와 딸들은 보안대원들에게 붙잡혀서 도살장에 끌려간다. 하지만 그녀의 딸들은 떨지도 않고 태연하게 죽음을 맞는다. <미래전쟁>의 결말에 드러나는 비장감은 채식/육식이라는 이분법이 가진 폭력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욕망은 주체의 정동되기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정동이란 몸의 운동을 그 잠재태-존재하거나, 더 정확하게는 행하게 되는 역량-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며, “그것은 활동의 양태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의 역량들을 추진하는가와 관련”³⁹⁾된다. 다시 말해 정동은 주체가 타자들과 관계 맺으

39)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p.31.

며 형성되는 내면의 변화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자기 확산의 과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 전쟁>은 켄타리 가족의 정동되기를 보여주며, 이분법적 구도의 비윤리성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미래 전쟁>이 계기가 되어 여인국의 안과 밖의 대립이 해소되는 것으로 『완전사회』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본다면 『완전사회』는 근대 사회의 이분법적 구도를 비판하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의 욕망에서 발견하려는 작품이다. 근대의 한복판에서 포스트 근대를 향해 있었던 『완전사회』의 의미는 남성/여성의 대립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근대의 이분법적 축적구조를 시야에 넣으며, 감정마저 상품화시키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V. ‘인간 혁명’을 위하여

1968년 발표된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남성이 화성으로 추방되고 여성이 진성이 된 2155년의 지구를 다룬 소설이다. ‘완전사회’를 자부하는 여인국에는 화성에 거주하는 남성과의 대립, 신체 접촉을 통해 성행위를 하는 조직과의 대립이 존재했다. 우선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계문명이 발달한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항대립을 포착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인간 혁명이라고 일갈한다.

이항대립의 극복이란 근대의 이분법적 세계관의 해결을 의미한다. 『완전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라는 표면적 구도 속에서 과학기술과 젠더, 그리고 욕망의 관계를 제시했다. 우리는 『완전사회』라는 텍스트가 1960년대라는 당대적 맥락과 소설의 시간이자 현재의 시간인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 갖는 의미를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당대적 맥락에서 『완전사회』는 근대 가부장제 사회의 축적구조를

환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성 중심의 공적 사회의 자본 생산성을 위해 여성을 가정이라는 비가시적 영역의 존재로 여겼던 근대국가 체제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 박정희 체제를 비판적으로 염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소설로서 『완전사회』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여 큰 인기를 얻었지만, 단순히 상업성으로만 귀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적 맥락에서 『완전사회』는 포스트 휴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상상했다. 포스트 휴먼이란 근대의 이분법적 축적 구도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 근대에는 젠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다리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젠더’라는 법칙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성/여성의 위계구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아니라, 개인의 몸에 스며들어 있는 젠더의 경로를 벗어나는 일이다. 권력은 외부로부터 강제하지 않고, 우리의 몸에 권력을 따르는 회로를 심어놓는다.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것은 정동을 지배한 권력자의 시선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완전사회』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맥락은 근대 사회에서 포스트 근대로 이어진 우리의 역사와 조응한다. 특히 포스트 휴먼의 시대를 가정한 여인국의 모습이 실제 우리의 삶과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자기의 자율성을 상실했다. 인간의 감정까지 상품화하는 시대에 더 이상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지키는 지켜내며 사회현실에 비판적 인식력을 갖추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반정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하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이 조직은 개별자의 감정이 서로 공유되고 연결되어 구성되었다. 일회적 만족이나 소비되는 욕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욕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정동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완전사회』는 반정부조직의 정동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우선구의 가상소설 <미래사회>로 어설픈게 봉합해버린다. 다소 뜬금없게 느껴지는 가상소설의 존재는, 그만큼 작가가 말하고자 한 메시지가 분명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완전사회』는 근대 사회에서 포스트 근대에 이르는 기간에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 이분법적 현실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정동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동을 통해 어떻게 포스트 휴먼의 삶을 구체화할 것인가가 남겨진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운성, 『완전사회』, 아작, 2018.

2. 논문 및 단행본

김근배 외, 『“과학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서』, 역사비평사, 2018.

김미정, 『움직이는 별자리』, 갈무리, 2019.

니콜라스 카, 최지향 옮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1.

로지 브라이도티, 이영란 옮김, 『포스트 휴먼』, 아카넷, 2017.

마리아 마즈, 최제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문만용, 「1960년대 ‘과학기술 붐’: 한국의 현대적 과학기술체제의 형성」,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9집, 2007, pp.69-98.

복도훈, 「단 한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집, 한국근대문학회, 2011, pp.345-373.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 책, 2014.

이매뉴얼 윌러스틴/나종일·백영경 옮김,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작과 비평사, 2014.

이숙, 「문운성 『완전사회』(1967) 연구-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이데올로기 투영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52집, 국어문학회, 2012, pp.225-253.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2018.

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위상: 『주간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한문집』 제3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pp.225-258.

정희진, 「언어가 성별을 만든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카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다산초당, 2017.

케서린 헤일스, 허진 옮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플래닛, 2013.

허운,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1960년대 초남성적 사회의 거울로서 『완전사회』」, 『민족문학사연구』 제67집, 민족문학사학회, 2018, pp.483-509.

히로이 요시노리, 박계이 옮김, 『포스트 자본주의』, AK, 2017.

Abstract

Technology · Gender · Affect:

Three Conditions for a Post-Human

- Focusing on Moon Yun-Sung's, "Perfect Society" (1967)

Choi, Byoung-goo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conditions for becoming a post-human centered on the "Perfect Society" (1967) by Moon Yun-Sung. The crisis experienced by the women's country of the "Perfect Society" makes the subjects learn the dichotomous thoughts for capital accumulation, and reminds them of the dangers of capitalism that made them consumers. This is an allusion to the regime of Park Chung-Hee, which disseminates the economic universalism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o cover the immorality of the system. It is the Affect that the "Perfect Society" provides as a medium to discover and overcome this and ultimately become a post-human. The women's country controlled emotions by strictly prohibiting sexual encounters between the body and the body. However, the Affect has the possibility of scattering the circuit of fixed thinking through intervening in the moment of the relationship such as the encounter of the body. It has the potential to transcend modern dichotomous thinking. Thus, a post-human, the "human revolution" pursued by the "Perfect Society" is possible when the violence of the modern capitalist economic system that allocates and enforces a specific identity is resolved.

Key Word : science fiction, technology, “Perfect Society”, post-human, gender, affect

최병구

소속: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baius@gnu.ac.kr

이 논문은 2020년 8월 15일 투고되어
2020년 9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9월 15일 게재 확정됨.